



YTN DMB 12월 본방송

6월 장비발주, 10월 시험방송

이동멀티미디어 시대를 열어 갈 YTN의 지상파DMB 준비단이 닦을 올리고 뉴-미디어 바다를 향해 출항했다. 지상파DMB 6개 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DMB의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새로 출범한 지상파 DMB 준비단에는 황명수 총괄단장 아래 정책기획팀장(이동현), 채널운영팀장(박철원), 데이터서비스팀장(기정훈), 기술팀장(임영선), 경영지원팀장(신광호) 등 모두 5명의 팀장이 배치돼 팀구성을 비롯한 DMB법인 설립 작업과 송신기 등 주요 장비 발주를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

12월 본방송을 앞두고 주요 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로 법인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해 5월 중으로 독립된 법인체로서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공동중계망 구축과 송신기 등 필수 장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주력할 것이다. 또 데이터 채널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TF팀을 조기에 발족시켜 차별화된 DMB서비스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2단계로는 각 팀별로 소수의 필수인원을 보강한 뒤 각종 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함께 주면에서 도입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송신기 등 지상파 송수신을 위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발주할 예정이다. 장비가 도입되는 시점인 9월쯤부터 사내에 DMB스튜디오와 주·부조정실 등 방송시설 설치 작업을 벌이게 된다. 3단계 시점인 10월부터는 지상파 방송을 위한 기술적인 시험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며 11월 초에는 24시간 DMB 방송을 하기 위한 최종 리허설적인 시범서비스가 이뤄지고 각 팀별 인원 충원에 이때야 비로소 완전한 진용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어 12월 중에는 KBS, MBC 등 5개 지상파 DMB 사업자와 함께 본격적인 이동멀티미디어, DMB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이다.



5월3일 YTN DMB 주주 간담회

주어진 내외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단말기 수급에 제약이 많은 도입기에 DMB전용 콘텐츠를 어느 정도 제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병행하고 있다. 재전송 비율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를 포함한 조달자금의 규모 등을 셀 수 없을 만큼 시뮬레이션 작업을 반복해 가장 적정 규모의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제작, 기타 PP나 DMB전용 CP 등 외부 제작사가 보유한 프로그램의 구매나 외주제작 전반에 대한 관리 등도 채널운영팀의 주된 업무이다.

하루 평균 YTN뉴스의 재전송 비율을 50%대 전후로 정한다고 할 때 현재 아침 7시대의 뉴스7-9이나 낮 시간대의 뉴스퍼레이드와 뉴스의 현장, 그리고 뉴스Q 등 소위 DMB 주력 시간대의 프로그램은 DMB재전송 비율이 100%까지 갈 수 있지만 이 시간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매정시 뉴스에 해당하는 YTN24의 경우는 절반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단위 시간 비율 측

면에서 15분대를 전후해 DMB 구조에서 매끄럽게 끊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매정시 뉴스의 전체 흐름이 DMB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DMB 전용 콘텐츠 발굴 주력

DMB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현재 구조에서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운행파트에 대한 일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DMB의 프로그램별 단위 운행 시간은 모바일 특성에 따라 5분물, 10분물, 15분물 등 지금보다는 더욱 잘게 구분돼 방송될 것을 전제로 하면 운행에 대한 부담은 현재 부조에서 라이브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에 필적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YTN과 달리 KOBACO에 의한 광고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점은 YTN의 자체영업을 통한 광고가 일체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실시간 재전송시 YTN이 영업한 광고물 전량을 기술적으로 분리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기술적으로 방송사고 없이 실시간 전송되는 뉴스에서 광고부분만 매끄럽게 따로 떼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DMB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과제임이 분명하다. 뉴스 이외에 YTN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재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돌발영상'이나 '위성통역실', '역사 속 오늘' 등은 DMB 환경에서는 최적의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YTN하면 떠올리게 되는 DMB전용 콘텐츠, 이른바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독자적으로 개발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채널운영팀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거리가 바로 이 부분이다. 나름대로 YTN의 주력 콘텐츠를 등에 업으면서 YTN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제고하고 DMB콘텐츠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다.

채널운영팀 역할과 과제

채널운영팀의 대략적 준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하고자 한다. YTN DMB는 텔레비전 채널인 YTN플러스와 데이터방송 채널인 YTN프리미엄 등 2개채널을 직영하고 라디오 채널 2개는 교통방송 TBN과 SATIO에 임대, 모두 4개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채널운영팀은 직영채널인 'YTN플러스'가 타 지상파 DMB사업자의 편성과 어떤 차별화를 기할지에 대한 편성전략과 기획 업무를 가장 중요한 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YTN 뉴스의 재전송 비율을 어느 선에 맞추는 것이 YTN과 YTN DMB 사이에 가장 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 우리에게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방송협회 산하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가 5월 1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사무국 개소식을 열고 힘차게 출발했다.

개소식에는 YTN 표완수 사장을 비롯한 6개 지상파 DMB 사업자 대표들과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지상파 DMB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는 지하철 등 음영지역에서 갭필러 중계망 구축과 마케팅 전략 등 현안에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5월호 목차

- 121 ▶ DMB 성공조건 - 시청자 욕구 반영하는 콘텐츠
- 131 ▶ YTN에 바란다④ - 지식시대에 기여해야
- 141 ▶ 칸 출장기 - DMB와 Cote d'azur(꼬뜨 다쥐르)
- 151 ▶ 세계 빛 축제 취재기 - 독도에서 황순욱입니다
- 161 ▶ 일리노이대학 학생 연수 - 유익한 경험, 따뜻한 환대
- 171 ▶ 미디어다음 - 뉴스의 현장으로 들어온 인터넷
- 181 ▶ 통신원에게 듣는다④ - 동포들의 호응에 사명감 느껴
- 191 ▶ 프로그램 탐방 - 뉴스7-9

특별기고 - YTN DMB의 성공을 위한 조건

시청자 욕구 반영하는 콘텐츠 필요 ...



주정민 교수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YTN DMB를 비롯한 6개의 지상파DMB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인 DMB 시대가 열리고 있다. DMB서비스는 그동안 고정시청 중심의 방송시장에 이동시청 중심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공해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송포맷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상파DMB의 성공적 시장정착을 위해서 사업자들은 기존의 미디어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의 서비스 준비가 필요하다.

조기 가입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예상

지상파DMB는 6개 사업자가 위성DMB와 함께 새로운 이동방송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지상파DMB는 6개의 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에서 시청자 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위성DMB와 경쟁해야 한다. 지상파DMB 사업자들 간에는 프로그램 확보와 광고수주의 경쟁을 해야 하며, 위성DMB와는 시청자 시장의 선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방송매체와 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하고, 향후에 등장할 유사서비스인 무선인터넷 등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상파DMB의 생존 기반인 시청자 시장은 새로운 매체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하나의 매체가 점유하는 비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동방송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는 하지만, 기존 방송매체와 상당부분 대체되는 시장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자신들은 물론 다양한 매체들과 시청자 시장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신규매체와 서비스가 시장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도 현재 지상파DMB가 처한 현실과 동일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매체성격에 적합한 조직체계 구축 필요

YTN DMB가 방송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YTN DMB는 기존의 방송매체와는 달리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PP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즉 외부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수급하여 편성행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사용채널을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기도 한다. YTN DMB는 서비스 구성을 플랫폼사업과 PP 사업 중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조직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YTN DMB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조직보다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수급하여 활용하는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직접사용채널도 초기에는 기존 YTN의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말기의 보급과 유통, 그리고 광고 재원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YTN DMB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유통과 활용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콘텐츠 제공 필요

YTN DMB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체성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콘텐츠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초기에는 주로 기존의 텔레비전 서비스를 선호하나, 점차 이동 중에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DMB서비스는 짧게는 3-5분, 길게는 10분 내외 길이의 콘텐츠가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동 중에 제공받는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형서비스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형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를 이용자들의 생활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DMB의 시청행위가 주로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인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TV와는 다른 집단시청보

다는 개인시청의 상황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들이 프로그램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형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DMB 데이터방송을 활용한 쌍방향의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쌍방향의 콘텐츠는 개인들이 DMB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단말기 보급과 가입자 확보가 성공의 관건

YTN DMB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단말기의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상파DMB는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단말기만 갖추면,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 보급은 곧바로 이용자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양질의 콘텐츠를 서비스 한다고 할지라도 가입자 증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상파DMB는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위성DMB와 시장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말기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6개 지상파DMB 사업자의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단말기의 유통과 애프터서비스, 그리고 가입자 관리 망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동통신사와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동시에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음영지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동 중에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확보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신중한 자세로 서비스 준비 필요

그동안 제시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지상파DMB에 대한 시장전망은 대단히 밝은 편이다. 그러나 과거 신규 미디어의 도입 시마다 시장전망은 밝았으나 실제 시장정착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방송시장의 구조를 볼 때, 지상파DMB도 현재의 예측만큼 시장정착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콘텐츠, 전송망, 단말기, 기술, 그리고 제도적인 여건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미래를 보다 엄격하게 내다보는 전망 속에서 신중한 자세로 치밀하게 서비스 제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게시판

- **입사**
이두표 전무(마케팅 담당) 4.18
- **퇴사**
남원호(타워사업본부) 4.15 / 윤현운(타워사업본부) 4.30 / 오호중(해외사업팀) 4.30 / 박미영(타워운영부) 5.1
- **승진**
부국장대우 ▶ 홍영기 춘천지국장, 이계성 기술관리부장, 부장 ▶ 홍수기 전주지국장, 정명렬 기술연구소장 직대, 류희림 편성운영팀장, 이훈렬 경제부장, 오수학 사회2부장, 박성호 국제부장, 김재동 영상특집팀장, 김윤섭 마케팅2부장, 부장대우 ▶ 김중술 해외방송팀장, 이귀영 편집3팀장, 조성룡 영상편집팀장, 차장 ▶ 상수중 편집2팀장, 황선욱(경제부), 박근표(편집2팀), 백선기(영상취득팀), 이기정(제작1팀), 김용구(제작기술부), 김영철(중계부), 박상남(제작팀), 김해중 마케팅3부장 직대, 차장대우 ▶ 김희명(경영관리국), 정석영(사회1부), 도경희(대전지국), 유형식(경주지국), 이철근(부산지국), 방병삼·원경태(편집2팀), 서영석(그래픽팀), 한원상·이문세(영상취득팀), 송진욱(기술연구소), 임준석·이광희·김동후(제작기술부), 민병오(중계부), 임수근(가동취득팀), 원영빈(영상취득팀), 염해진(영상특집팀), 최병관(제작기술부), 최성호(매체관리팀), 박철원 DMB 채널운영팀장, 기정훈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4.8
- **전보**
한영규 기획팀장, 강홍식 방송심의팀장 겸 홍보팀장, 전무복 타워운영부장, 최일기 타워운영부, 신광호 재무회계팀장 겸 DMB경영지원팀장, 김충산 방송행정팀장, 김익진 사회1부장, 최수호 문화과학부장, 천상규 스포츠부장직대, 유석현 앵커팀장, 윤두현 제작팀장, 김천석 매체관리팀장, 심창래 마케팅기획부장, 김진희 마케팅1부장, 황명수 DMB총괄부장, 이동현 DMB 정책기획팀장, 임영선 DMB 기술팀장, 최대만 부장 감사실,

- 김현우·류현홍 기획팀, 홍성보 차장대우·이영미 방송심의팀, 심중남·박진언·김은주 재무회계팀, 안재열 부장대우, 강경심·최동숙 총무부, 박복순 방송행정팀, 채문석 차장·김형근 차장·이동우 차장대우·유재복 차장대우·김태욱·최영주·정치부, 송경철 차장·오점곤·김진우·김희준·오승업 경제부, 김장하 차장·임종렬 차장·이재홍·김승재·권영희·이교준 사회1부, 김수진 사회2부, 김민 제주지국, 왕선택·이승훈·최기훈 국제부, 김지영 문화과학부, 조승희 해외방송팀, 김원배 차장·강성우 차장대우 편집1팀, 류충섭·김정아 편집2팀, 정유신·이종구·이광연·김명숙 편집3팀, 노중면·박신운 앵커팀, 홍문표 부장대우·서승철·정철우 영상취득팀, 김신영 제작팀, 정해불 기술관리부, 서대원·이창준 차장·이승우·정광웅 제작기술부, 조민철 제작기술부(해외방송팀 과건), 허창재 차장·김진호 차장대우·오민철·김민태·강기찬 중계부, 이병균 부장 문화사업팀, 이종국 차장대우 해외사업팀, 송영경·김남식·정태걸·김호석·이

- 석제·이승주·김규남·김시현·이병우 마케팅기획부, 김성운·한경임·설명수 차장·김명섭 마케팅1부, 객세운 차장·김선기 차장대우·안성훈·김연기·지민근 마케팅2부, 정기호 차장대우·성명현·황의업·남궁용·장훈희 마케팅3부, 4.8
- **기구개편에 의한 일괄발령**
편성심의실 홍보팀 → 기획조정실 홍보팀, 기술연구소 준비 → 기술연구소, 타워사업국 관리부 → 영업부 → 경영관리국 타워운영부,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 → 경영관리국 인력관리팀, 편성심의실 편성운영부 → 보도국 편성운영팀, 제작국 제작1팀·제작2팀 → 보도국 제작팀, 4.8
- **부음**
정경남(제작기술부) 부친상 5.5 / 김윤섭 마케팅2부장 모친상 5.6 / 김선희(편집1팀) 모친상 5.9 / 백선기 차장(영상취득팀) 빙부상 5.11
- **결혼**
김형보(편성운영팀) 4.16 / 정원태(제작기술부) 4.24

개국 10년 기획시리즈 - YTN에 바란다 ④

지식 시대로의 이행에 기여해야



변동현 교수
한국방송학회(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회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YTN 10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미국 CNN의 대안으로 한국에 YTN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1세기는 정보 사회를 넘어 지식 사회로 간다고 하는데 YTN의 미래 10년은 이러한 지식시대로의 이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 특정시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접하고 즐긴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YTN은 지상파 DMB의 주역이 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정보 지식사회를 리드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 방식의 변화도 주목된다. 전통적인 하드뉴스는 좀 더 소프트하고 센세

이셔널한 형태로 변화해 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저널리스트를 보도자 보다는 이야기꾼 내지는 중계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하트리(Hartley, 1982)와 피스크(Fiske, 1992)는 ‘진지한 뉴스(serious news)’와 ‘진지하지 못한 뉴스(non-serious news)’로 구분한다. 랑거(Langer, 1998)도 방송뉴스가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에 맞추는 경향 때문에 ‘진지하지 못한 뉴스’가 증가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스의 일방적 유통 형식도 파괴된다. 양방향성(Interactive)이 중시된다. 아마도 수용자들은 더 이상 뉴스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이용하는 주체로 부상할 것이다. 뉴스를 비판하고 저항하며 직접 생산하여 전달하려는 시도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많은 취재가 앞으로는 디지털 정보의 덩어리(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따라서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가 일반적인 취재 형태가 될 것이다.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연에 및 오락 프로그램들에 국한되지 않고 뉴스보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뉴스도 하나의 방송프로그램 상품으로 간주되어 점차 연성화함에 따라 타블로이드텔레비전(tabloidiz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실용적인 뉴스를 위해서 뉴스가 좀 더 수용자에 관련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방송보도의 책임성 문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면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방송보도의 선정성, 불공정성, 비전문성, 개인 법익의 침해 등이 그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방송보도에 있어서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9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뢰성(92.0%), 공정성(87.8%), 신속성(86.5%) 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YTN이 보도매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요소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언론사 내적인 자유가 더 큰 문제다. 즉, 사내 경영주나 상급자로부터의 통제, 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통제가 더 위험한 요소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언론인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의 문제로서 지속적인 전문화 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다. 재교육 경험이 있는 방송인은 38%로 과반수도 안 되고 재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48%가 사내 자체 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육자의 47%가 한달이내의 단기교육이어서 방송인의 재교육이 명목에 치우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보도매체는 사회의 논제를 설정(agenda-setter)하는 국가의 동맥이다. 전문 뉴스채널, YTN 10년을 맞으며 더욱 국민과 함께하는 YTN 100년이 펼쳐지길 기원한다.

YTN단신

서울타워 리노베이션 계약



회사는 4월8일 힐튼 호텔에서 CJ와 ‘서울타워 리노베이션’ 계약을 가졌다.

두 회사는 서울타워에 문화 공연장과 전시장, 미술관 등을 새로 만드는 등 내부 공간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울타워는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2월 1일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YTN DMB 주주 간담회

YTN DMB는 5월 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YTN DMB 컨소시엄에 참여한 25개 주주사들을 대상으로 지상파DMB 사업허가 추천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첫 실무 간담회를 열고 법인설립계획서에 따른 300억 증자권과 DMB사업의 향후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YTN DMB는 이달 중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증자결의를 통해 초기 자본 20억원에 280억원의

추가 증자를 완료하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최종 법인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주주사들은 법인 설립 이후 송신기 발주와 기본 편성 전략 수립 등 향후 주요한 방송 준비 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심을 나타내는 등 새로운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인 지상파DMB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호주 SBS TV에 뉴스 공급

YTN은 호주 지상파 방송인 SBS TV에 뉴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5월 8일(현지 시간) 8시부터 30분 동안 첫 방송을 내보냈다.

호주 SBS TV는 가시청자수 750만명의 지상파 방송으로 18개국 뉴스를 공급받아 해당 언어로 방송한다.

YTN은 이와 함께 호주 SBS 라디오의 한국 뉴스도 공급하기로 했다.

YTN 사이언스+팀, 한국물리학회 감사패 받아

한국물리학회가 ‘세계 빛 축제’를 생방송한 YTN의 기획자인 황성수 제작부장과 연출을 맡았던 이재철 차장, 한정호 기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5월 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자축연에서 한국물리학회 김채욱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큰 행사를 무리 없이 생방송한 YTN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위성DMB 본방송 시작, YTN 채널 12번

TU미디어가 5월 1일부터 위성 DMB 본방송을 시작했다. 위성 DMB는 채널 12번인 YTN을 비롯해 비디오 7개 채널과 오디오 20개 채널, 모바일 채널 등을 제공한다.

일월성배 한중 바둑 대항전



YTN과 중국 CCTV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원과 중국기원이 주관하는 ‘일월성배 한중 바둑대회’ 2차대회가 5월 12일~13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2월 베이징 대회에서 한국 팀은 5대 5로 중국과 비겼고 이번 대회에서 4대 6으로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

일월성배 바둑대회 결승전은 오는 6월 경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YTN 기술인협회 춘계 등반대회



5월 14일, 수락산

칸 국제영상물전시회 출장기

한국의 DMB와 Cote d'azur(코뜨 다쥐르)



류 환 홍 (기획팀)

매년 남불의 휴양도시 칸느에서 열리는 방송 프로그램 견본시인 MIPTV에 내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참석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껍이나 감격적인 경험이었다.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지만

단 한 번도 프랑스 땅을 밟아보지 못 했던 내가 회사 업무로 인해 프랑스를 방문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는가? 정말이지 “불문과 졸업한 사람에겐 언제가 됐든 프랑스를 갈 일이 생긴다”라고 하셨던 대학 은사님의 말씀이 천금의 가치를 지닌 진리로구나 싶었다.

니스에서 칸느로 이어지는 남불 해안은 푸르디푸르 바닷빛으로 유명해 불어로 Cote d'azur(코뜨 다쥐르 : 쪽빛 바닷가)라 불린다. 그 칸느 해변에 바짝 붙어있는 Palais des Festivals(축제의 궁전)은 매년 5월 칸느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이다. 그곳에서 나는

한국 방송위원회가 설치한 한국전시관 지상파DMB 부스에서 KBS·MBC·SBS 직원들과 함께 외국인 방문객에게 한국의 지상파DMB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영어도 짧고(그렇다고 불어가 능통하지도 못함) DMB에 대한 기술적 체계를 두루 섭렵하지도 못한 처지에서 영어나 불어로 방문객의 꽤나 구체적인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미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험악한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별 무리 없이 내가 맡은 역할을 별 무리 없이 해 낼 수 있었다.

더욱이 영화배우나 패션모델을 방불케 하는 빼어난 용모로 한국인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프랑스인 여성 도우미 Sevrine(세브린느)와 Caroline(카롤린느)가 옆에 있었기에, 하루 종일 서서 부스를 지키는 일이 그리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나는 심심할 때마다 두 여성과 불어로 간단한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은 내가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불어를 구사하려 애쓰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는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을 가르쳐 달라며 내게 조르기도 했다. 출국 전에 식사를 같이 하려던 것이 무산되고 말아 아쉬움이 컸지만, 아름다운 두 프랑스 여성들과 즐거웠던 대화는 훗날 내가 칸느를 떠올릴 때 즐거운 추억의 한 토막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상파DMB 부스를 지키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 올해부터 상용화를 시작한 지상파와 위성 DMB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예상 외로 높았다는 점이다. 우리 부스를 들른 외국인 방문객마다 현지 지상파방송 TF1이 지상파 DMB폰에서도 수신되는 것을 직접 보며 놀라워했다. “언제쯤이면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DMB가 가능하냐?”, “한국은 DMB의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수출할 계획이냐?”, “유럽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DVB-H와 DMB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며 방문객들은 연신 질문을 해왔고, 나는 가능한 한 그들에게 만족스런 답변을 들려주기 위해 내가 가진 DMB에 대한 지식과 어학실력을 총동원해야 했다. 또한 La Tribune라는 프랑스 경제신문 여기자의 취재요구에 장시간 응하기도 했으니, 아마 내가 답변한 내용이 그 후 La Tribune지에 기사화됐을 것이다.

행사장 근처 외에는 칸느 시내 구경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다 왔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나는 DMB의 성공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사실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한국의 DMB가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전 세계 방송 종사자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Sevrine, Caroline와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출장은 내게 DMB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 YTN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 계기였다.

‘세계 빛의 축제’ 취재기

“대한민국 땅 독도에서 YTN 황순욱입니다”



황 순 욱 (사회1부)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안개 속에 가려진 외로운 섬 독도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는 환상의 섬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바람이 많이 불어 일 년에 70일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 그런 독도로 출장을 떠났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발표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세계 빛의 축제’를 독도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그런데 생중계만큼이나 중요한 임무가 또 있었다. ‘일단 독도에 입도를 하라’는 것. 5일이나 여유를 두고 출장을 떠난 것도 독도 접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3번의 독도 접안 시도 실패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독도 접안이 어려운 만큼 일단 접안에 성공하면 독도에 체류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 첫 번째 날 접안에 성공한다 치자. 무슨 수로 독도에 3박 4일간 머문다는 말

인가?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호사로운 생각이었고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날 2미터가 넘는 파도가 일어 접안에 실패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남은 두 번의 접안시도를 모두 실패한다면 정말 낭패였다. 회사에서는 독도에서 생중계를 하라고 보냈는데 독도를 밟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말이다.

울릉군청의 ‘독도 입도허가 여부’와 문화재청의 ‘독도 체류승인 여부’도 문제였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행정적인 절차 따위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기상변화는 하늘만이 허락하는 것이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온갖 관심은 일기예보에 집중됐다. 그리고는 경찰기자 정신인, 이른바 ‘사스마리 정신’이 발동됐다. 일단 독도에 들어가거나 하자. 접안을 하지 않으면 헤엄쳐서라도 들어가리. 또 체류를 못하게 해도 상관없었다. 우리가 잘하는 ‘뺨치기’가 있지 않던가! 결국, 세 번의 접안 시도 끝에 ‘세계 빛의 축제’ 하루 전날 드디어 독도를 밟을 수 있었다. 그것도 일반 관광선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도움을 얻어 경비정을 타고 갔기에 그나마 가능했다.

이제 바라던 독도 입도는 성공했지만, 독도에서 1박 2일을 무슨 수로 버틴담? 한 달 전에 이미 독도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K사와, S사 팀은 취사도구 일체와 침낭, 그리고 즉석요리 제품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왔다. 독도에는 음식과 식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K모 방송국은 중계인원만 17명에 장비가 3톤이 넘는 규모로 독도 경비대원 전체 인원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렇다면 YTN 대표선수 2명이 준비한 것은? 놀랍게도 비상식량이랍시고 준비한 곰보빵 10개와 बे지밀 10개가 전부였다. 또 두껍게 끼얹은 스웨터와 청바지가 침낭을 대신했다. K모 방송국 사람들이 즉석요리를 향기를 진동시키며 카레라이스를 먹을 때, 꾸역꾸역 빵을 삼키며 자존심을 지켜야 했다. 그나마 우리에게 식량을 나눠준 S사 동료들이 없었다면 쫄딱 굶을 뻔 했다. (다음 독도 출장을 가는 사람은 꼭 조언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계 빛의 축제’ 생중계를 무사히 마치는 것. 다른 방송국 팀들이 복잡한 SNG장비를 하루 종일 설치하고 점검하는 동안, 나는 인터넷 선을 화상전화에 꽂고 화면과 음성 테스트를 했다. 방송을 위한 자료화면은 윤원식 기자가 노트북과 6mm카메라를 이용해 능숙한 솜씨로 편집한 뒤 인터넷으로 송신했다. 달랑 화상전화기 한 대와 6mm카메라로 첨단 위성방송 장비를 이용하는 다른 방송국과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긴 하다. 최소한 YTN이 대대적으로 광고한 내용에 비교해도 너무 조출한 취재팀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무려 17명의 인원이 3박 4일 고생한 K모 방송국에 비하면 우리의 업무효율성을 대단한 것이었다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다.

사실 독도 출장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느낌 같아서 책 한 권이라도 쓸 것 같은 심정입니다. 느낀 점도 많고 며칠 동안 온종일 배만타고 다니느라 지독한 배멀미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든 소주 한 잔 사주세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학생 YTN 연수기

YTN 인턴 유익한 경험, 따뜻한 환대 고마워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학생(방송학 전공) 4명이 한국 언론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YTN에서 인턴생활을 했다. 이들은 국제부를 시작으로 정치부, 문화부, 스포츠부, 편집부, 사회2부 등을 돌면서 YTN에서 24시간 뉴스가 만들어 지는 현장을 경험했다. 그들을 만나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의 차이점과 공통점, YTN 기자들에 대한 인상,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등을 들어봤다.

Q YTN 기자들을 지켜본 소감?

로렌 안더만 ▶ YTN 기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 거 같다. 장시간 일하고 근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었다. 내게는 특히 문화부에서 보낸 시간이 유익했다. 이경아 기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애니메이션의 미래에 관해 중국 총리의 사촌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문화 뉴스이기 때문에 특히 문화부 기자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문화부에서 주로 다루는 기사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알렉산더 팍 ▶ 인턴 기간 동안 YTN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기자들과 함께 일하는 멋진 기회를 가졌다. 모두들 너무나 친절해 우리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주었다. 기자 뿐 아니라 앵커, 제작팀, 편집팀, 영상취재팀 모두 우리 인턴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었고 이 점에 무척 감사한다. YTN 같은 전문적인 조직에서 일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듯 한 기분이고 미국에 돌아간 뒤에도 이곳에서의 경험이 커다란 자산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Q 미국과 YTN의 저널리즘 비교?

로렌 안더만 ▶ 이번이 언론사 첫 인턴 경험이지만 미국과 한국 언론(YTN)이 차이점 보다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뉴스 방송 제작 방식도 대체로 비슷하고, 보도국 직원들은 존경을 받는다. 미국 기자들은 일에 관한 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시간도 많이 쫓기는 듯하지만 YTN 직원들과 같이 장시간 근무를 한다.

알렉산더 팍 ▶ 미국과 한국의 방송 언론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태도와 근무 스케줄은 YTN이 미국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덜 바쁘다고 생각한다.



왼쪽부터 조슈아 존슨, 스테이시 밀러, 로렌 안더만, 알렉산더 팍.

그러나 보도의 품질과 전 직원의 능력은 CNN 같은 미국 방송사 직원들과 동급의 수준이다. 앞서 말한 작은 차이점도, 우리의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

Q 인턴 과정 소감?

조슈아 존슨 ▶ 이번 인턴 과정은 나에게 24시간 뉴스 방송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다. YTN에서 기자들의 취재 현장을 직접 따라가 보았고 스포츠, 정치, 사회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도 해보았다. 인터뷰도 해보고 출입처도 나가보고 글도 써보는 등 장차 내가 마스터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연습해볼 수 있었다. 인턴 프로그램의 장점은 실제 기자 생활에 대해 직원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잠도 못자고 이를 연속 스트레이트로 일한 경험들, 특종을 따낸 일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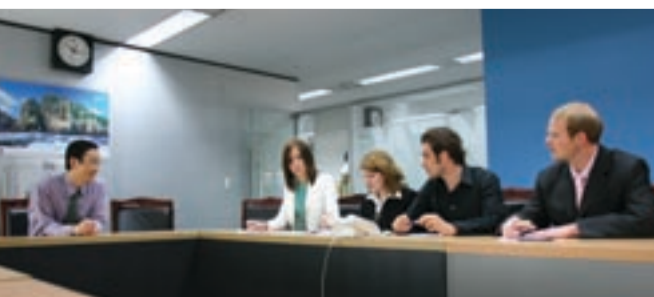
스테이시 밀러 ▶ YTN에서 뉴스 제작 현장을 관찰하면서 정말 재밌었다. 뉴스 소스를 취재하고 전 세계에서 들어온 뉴스를 추려내고 스크립트와 테이프를 찾아내는 작업 등 뉴스 룸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했다. 미국에서의 인턴 과정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 과정을 인턴이 다 보기는 힘들다. 기자들의 작업 현장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YTN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라이브 뉴스를 준비하는 뉴스 룸의 모습도 보았고 취재원을 인터뷰하는 현장도 견학할 수 있었다. 미국에선 인턴 학생들에게 보통 리서치나 책상에서 하는 업무를 주고 뉴스 프로그램을 준비하

는 제반 과정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주지 않는 편이다.

Q 잊을 수 없는 경험?

조슈아 존슨 ▶ 내 부전공이 '정치와 정부'이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기자인 유제웅 기자와의 만남이 가장 유용했고 즐거웠다. 유 기자는 자신의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주었고 정치부 기자에게 필요한 기술(능력)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었다. 또 청와대 기자실과 국회 의사당도 안내해주었다. 내가 기자가 되면 일하고 싶은 분야가 바로 정치부였기 때문에 나로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유제웅 기자와는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분이 앞으로 해낼 훌륭한 일들에 대해 듣고 싶고 그분에게서 배운 것들이 결실을 맺었을 때 그분께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스테이시 밀러 ▶ 미국 바깥에선 스포츠 행사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하루 동안 스포츠를 취재한 게 무척 흥미로웠다. 먼저 스포츠 테이프를 보면서 그럴듯한 앵커멘트를 찾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테이프의 장면들과 매치가 되는 기사 원고를 찾아내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좋은 연습이었다. 다음엔 카메라 팀과 합류해 야구 경기장으로 향했다. 미국과 한국의 야구 그리고 야구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다. 경기가 끝난 뒤엔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자가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취재팀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함께 편집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좋았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나는 대화와 토론의 힘을 믿는다



박주현 변호사 (시사업클로스 진행자)

대화보다는 술선수범이, 토론보다는 추진력이 더 직접적인 힘을 갖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대화와 토론이 없는 술선수범과 추진력은 자칫 원맨쇼나 독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화와 토론이 진정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자체로서 술선수범과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영감이나 직관이 뛰어나거나 정서적인 공감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이 아닌 한, 솔직한 대화도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부담 없는 친구사이의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부부관계나 부모자식관계나 상사와 부하직원관계와 같이 어느 정도 제로섬게임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반복해서 듣지 않는 한 자기중심의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일단 서로의 입장과 처지가 어떤지를 파악하고만 있어도 극단적인 파국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피할 수가 있다.

신은 공평하다. 누구도 완벽하게 모든 걸 갖고 있지는 못하다. 암기력이 출중한 사람은 창의력이 부족하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좌뇌의 활동이 미약하다. 공부 잘하는 대신 성품이 별로이고, 성공은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들도 많다. 숫자에 익숙한 사람은 맥락 파악에 약하고, 기획력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 약하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관료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할 때 가장 완성된 정책대안이 나온다.

이렇게 대화와 토론의 힘을 믿고 있지만, 사실 대화와 토론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우선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해 듣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다. 말하는 것 역시 정확하고 솔직하게 포인트를 잡는 것과는 반대로 가능하면 두루뭉술하게 필요에 따라서 방어법으로, 웬만하면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배웠다. 말 속에 유머를 넣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또 지겹지 않게 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는 물론 없었다.

1994년 독일에서 머물며 아이를 독일유치원에 보낸 적이 있는데, 글 쓰고 읽는 것을 가르치는 대신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듣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자란 어른들이 4-5시간씩 진행되는 TV토론프로그램을 밤새 재미있게 시청하는 것도 보았다. 성숙한 사회의 조건이구나 생각했다.

대화와 토론의 힘을 믿고 있기에 토론이나 심층인터뷰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진행을 맡는 것은 항상 선택의 우선순위에 있다. 한편 우리에게 토론문화의 기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보완할 좋은 방법을 궁리하게 된다. 말을 짧게 끊어서 주고받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외국영화처럼 자막을 넣으면 어떨까, 재연드라마를 삽입하면 어떨까 등등, 이런저런 궁리를 해 본다.

시사업클로스가 밤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다른 토론 프로그램들과 시청자 층이 다르다는 점과,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토론보다는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제3자의 합리적인 토론을 지향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제작진은 고생하겠지만 현장인터뷰나 사건일지 정리 등을 중간에 배치한 것은 시청자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시사업클로스가 24시간 뉴스프로그램의 위상에 걸맞은 유익하고도 편안한 토론프로그램이 되게 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다.

도쿄특파원 부임보고

지진의 공포와 함께 시작한 일본생활



도쿄 윤경민 특파원

기잉! 기잉!

일본 도착 사흘째, 나의 새벽잠을 깨운 평음은 지진이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좌우로 무지막지하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극도의 공포감이 내

살갓을 돋게 했다. 10초에서 20초가량이 지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지진은 물러갔지만 나와 당시 임신 8개월째로 접어들었던 집사람의 심장 박동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사는 도쿄 스기나미구를 강타한 지진은 진도 4, 리히터 규모로는 5. 별 피해는 없었지만 내 생애 첫 강진으로 기록됐다. 나의 일본 체류는 그렇게 지진의 공포와 함께 시작했다.

아! 나의 독도여, 지긋지긋한 다케시마여! 지진의 공포에 익숙해졌나 싶어졌을 무렵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일본 우익세력이었다.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안을 상정하고 급기야 가결하면서 독도 문제가 한일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각료들과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됐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전면에서 나서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닌가? (청와대를 출입했던 나였기에 노 대통령과의 인연이 일본에 와서까지 이어지는가 보다.)

부임 전 서울 주재 일본 언론사 특파원들은 모두들 내가 일본 내 한류 붐이 한창일 때 도쿄특파원으로 가게 돼서 잘 됐다고 부러워했는데, 이게 웬 일이라. 냉각된 한일 관계에 얼음 덩어리를 쏟아 부었다고 할까 이번엔 예정됐던 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역사 왜곡은 물론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더해져 문제는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사실 보통 일본 사람들은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세력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익세력이 현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일 관계 악화도 나를 괴롭혀. 어쨌든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잠잠해질 무렵 이번엔 중국 내 반일 시위와 그로 인한 중일관계 냉각. 양국간 책임 공방론이 팽공게임처럼 진행되면서 나의 두 눈은 TV 6개 채널과 신문 6부, 인터넷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나의 두 손은 마우스와 자판기에서 떠날 수 없었다.

급기야 열차 탈선사고까지

참 일복도 많은가 보다. 중일 정상회담 개최로 기사가 마무리 방향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에서 이번엔 효고

현에서 열차가 탈선해 아파트를 들이받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출근 직후 사무실 TV를 틀어 놓고 보는데 NHK의 항공 촬영 화면을 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처음엔 20-30명 부상으로만 보도됐지만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결국 이 원고를 쓰는 지금까지 (사고 발생 사흘째 오전) 사망자가 9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가 450명을 넘어섰다.

나의 체력은 어디까지?

새벽에 조간신문 6개를 체크하고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는 낮에 전화 연결, 저녁에 리포트. 자기 전에 뉴스 모니터와 인터넷 검색. 이것이 나의 도쿄 생활이다. 이제는 주일 한국대사관은 물론 외무성 국제보도관과 민단 관계자 등에게 수시로 전화해 취재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총리 관저 소속 보도관의 백그라운드 외신 브리핑을 듣는 등 취재 활동에도 익숙해졌다. 특히 도쿄지역이 입주해 있는 TBS 공청채널을 통해 호소다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례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어떤 때는 일본 언론보다 기사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됐다.

특파원 두 명씩에다 카메라맨, 오디오맨까지 있는 공중파 3사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저력 버티고 있다. 보도국장님! 도쿄도 카메라맨 현지 고용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4월 21일 일본 땅에서 세상 구경을 나온 나의 둘째 아들 호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YTN과 미디어다음

뉴스의 현장으로 들어온 인터넷 미디어



오은주 기자 (미디어다음)

‘미디어다음 오은주 기자, YTN방송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YTN 2시 뉴스의 현장에서 ‘인터넷 핫뉴스’를 소개하고 듣게 된 민망한 (!)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YTN의 방송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24시간 뉴스채널 YTN을 사랑하듯이, 뉴스를 좋아하는 네티즌들도 ‘미디어다음’을 사랑하고 즐겨 찾는다는 점에서 둘의 만남은 어쩌면 당

연한 것입니다.

뉴스를 사랑하는 네티즌, 뉴스를 만드는 네티즌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뉴스서비스 미디어다음은 2003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수많은 네티즌이 뉴스를 접하고, 또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는 통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뉴스, 네티즌 핫뉴스, 뉴스풀, 화제의 포토 뿐 아니라, 토론을 위한 아고라, 드라마와 엔터테인먼트를 특화한 텔레비전 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네티즌의 뜨거운 이슈들을 잘 보여줍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를 빨리 볼 뿐 아니라, 스스로 뉴스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또 같은 뜻을 가진 네티즌과 함께 모여서 움직입니다.

미디어다음 토론서비스 ‘아고라’의 네티즌 청원은 같은 뜻을 가진 네티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를 움직이고 오히려 뉴스의 중심에 서는 활동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부실도시락 사건은 미디어다음을 통해 처음으로 의제가 설정된 뒤 네티즌 청원을 통해 서귀포

시장의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애국가 저작권 문제, ‘취업=성폭행’ 발언물의 교수의 사과요구에 이르기까지 네티즌들은 이제 일방적인 뉴스의 소비자로서 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뉴스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방송, 깊어지는 만남

어떤 방송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속 뉴스와 네티즌의 관심을 방송에 소화하는 YTN은 앞선 방송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YTN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네티즌의 화제와 즐거움과 고민과 분노...

네티즌은 살아서 움직이며, 네티즌을 사랑하는 방송도 더욱 살아 숨쉬고 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방송의 전파력을 타고 네티즌은 사회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티즌과 시청자, 인터넷과 방송... 그 즐거운 만남이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또 방송 준비하러 갑니다. ‘인터넷 핫뉴스, 오은주입니다...’

세계속의 YTN - 통신원에게 듣는다 ④

“동포들의 호응에 사명감 느껴요”



정덕주 아르헨티나 통신원

88년 12월, 비행기를 타고 또 갈아타서 30시간이 넘게 걸리는 아르헨티나에 발을 디디면서 나의 생활은 시작됐다. 언어도 문화도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곳에서 생소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일도 했다.

타 방송사와 이곳 현지인들의 취재는 몇 번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YTN과 인연을 맺고 재외 동포들을 처음으로 취재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맨땅에 헤딩하며’ 일들을 배웠다. 이런 하루하루가 더욱 알차고 값지게 느껴졌다.

날카로운 첫 리포트의 추억

누구나 첫 사랑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했듯이 내게 YTN의 첫 리포트는 첫 사랑처럼 많은 걸 남겼다. 카메라와 무거운 삼각대를 둘러메고서 이리 저리 좌충우돌 했던 기억과 난생 처음 카메라 앞에서 했던 클로징 멘트는 왜 그리 틀려졌던지... 카메라 앞에서 머릿속은 스케치북의 하얀 도화지처럼 하얗게 돼 버리고 말았다.

첫 리포트만큼 나를 고생시켰던 것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내의 최대 빈민 우범 지역에서 사역활동을 하는 선교사 취재였다. 선교사가 무료 급식을 하는 선교센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외곽인데 칼과 총이 난무하고 마약 밀매도 성행하는 곳이다. 택시는 물론 경찰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곳이라 범죄 소탕도 헬기를 동원하는 곳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을 시작했다. 선교센터 안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드디어 센터 밖의 촬영, 황송하게도 선교사께서 카메라를 채 갈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건장한 사람을 보디가드로 붙여줬다. 한 손으로는 삼각대를 꼭 움켜잡은 채 촬영을 진행했지만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다행히도 모든 촬영을 무사히 마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싶다. 아마도 이렇게 하루하루 부딪치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인사회 취재맨 뿌듯함

무더운 여름날 바캉스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글을 배우던 교포 2세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현지에서 한국 영화 촬영현장을 취재한 것도 가슴 뿌듯했습니다.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한 여름 피약벌 아래에서의 오랜 촬영으로 새카맣게 탔던 기억도 새롭고 클로

징 멘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온 동네 개들이 갑자기 일제히 짖어대는 것은 왜인지 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신기하다며 나를 빙 둘러싸는 현지인들, 그들의 온갖 시선을 받으면서도 곳곳이 해내는 나도 의지의 한국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지 연예정보 프로그램으로 착각을 하고선 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노래를 한수 뽑겠다는 이들이나, Rock'n Roll을 한껏 쳐 봐도 되냐고 묻는 이들의 당돌한 끼는 나로서도 감당이 안 된다.

“아르헨티나 소식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2만여명의 재외 동포가 살고 있다. 한국과 가장 먼 곳이지만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고국의 향수를 달랠 수도 있게 되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곳 소식도 한국으로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그 기쁨은 배가 됐다.

얼마 전 이곳 한국 타운 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 중에 주인아주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자주 아르헨티나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웃음으로 답해 드리고 나니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진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내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해외방송팀에게도 감사의 말을 멀리서나마 전한다.

YTN 인터넷서널의 방송 일주년을 해외통신원 50여명 중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YTN 인터넷서널과 해외 리포터들이 함께 무궁한 성장을 해서 해외 곳곳의 한인 동포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또 재외 동포들의 소식은 고국과 함께 값지게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뉴스7-9(뉴스친구)··· 뉴스 형식에 관한 새로운 접근



‘뉴스7-9’ 앵커 김선영, 노종면

“옛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덩치가 큰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보았단다.”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 우리는 어린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때가 돼서 이 글을 다시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걱정과 번민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써내려 가고 있다.

짧은 것이 좋은 것이여?

평일 아침 7시부터 8시 55분까지 두시간 가까이 방송되고 있는 ‘뉴스7-9’는 ‘내 손안의 TV’, DMB의 출범을 얼마 앞두고 탄생했다. 그렇다면 DMB 사용자들은 어떤 형식의 뉴스를 좋아할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DMB가 정상 궤도에 올라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시청자들이 이 새로운 매체에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짐작이나 해 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럴싸한 얘기 중 하나가 DMB 시청자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옮겨 다니면서 시청하다 보니 길이가 짧은 걸 좋아한다는 것!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럴듯하다는 판단에 ‘뉴스7-9’의 프로그램 단위는 15분×8부로 결정이 났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짧게 만들어 시청자들을 붙들 수만 있다면 ‘미니’가 아니라 ‘초미니 프로그램’이라도 만들겠지만 길이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는 없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역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콘텐츠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끼고 사는 젊은이들의 속을 좀 들여다보았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게임을 즐기는 저들이 원하는 뉴스는 뭘까?’ 결론은 ‘뉴스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뉴스란 무엇인가?’ 나름의 사전적 의미가 있겠지만 필자는 ‘뉴스란 new하면서 잡다하지 않은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가정과 사무실에 모셔진 불박이 TV를 숭상하는 시청자들에게 통했던 ‘뉴스’는 21세기 DMB 시대에도 통할 것이란 믿음이다.

‘새롭다(new)’는 것은···

뉴스가 불만하려면 결국 ‘새롭다(new)’는 점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게 뉴스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항상 괴롭히는 화두다. 더구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뉴(new)한 것들이 절대 부족한 시간대이다. 전날 생산된 제품(리포트, 단신)은 아침해가 뜰 때까지 그야말로 테이프가 닳도록 반복 방송된다. 새로 승인되는 기사라야 사건사고와 국제부 기사가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이 충만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인가?

새로움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씹어야 음식물을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새로 생산되는 기사(이)가 많지 않다면 전달방법(잇몸) 만이라도 새로워야 한다.’ 이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새로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너다. 새로 작성된 기사를 가장 전면배치해 간단히 소개하고, 잠시 후 ‘뉴스 업데이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기사 작성자는 기사를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편집자는 (중요 기사일 경우) 대체사유까지 방송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런 새로운 전달시스템을 통해 시청자들이 기사가 처음으로 작성돼 완성될 때까지 ‘뉴스 업데이트’ 과정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의도다.

남의 것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한 매체에만 정을 듬뿍 주지 않는다. 요즘 통하는 말로 취향과 선택이 ‘그때그때’ 다르다. 따라서 우리 것만 붙들고 늘어질 수만은 없다.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봉이 김선달’ 식 방송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문의 깊이’와



‘인터넷의 넓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조간 1면 보기’와 ‘인터넷 엿보기’ 코너를 마련했다.

궁하면 재 활용하라!

우리의 과거 방송행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 끝에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그래픽과 인터뷰를 이용해 ‘그래픽뉴스’와 ‘들어봅시다’ 코너를 만들었다. 다양성의 궁핍을 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또 한편으로는 기사와는 관련성이 낮은 자료화면의 방송을 줄이고, 아울러 “000는 ~라고 말씀합니다 or 전했습니다 or 강조했습니다” 등의 주관적 기사 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결국엔 ‘리포트-단신-전화연결’만 반복되던 단순한 방송 형태가 보다 입체적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계산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의 뉴스라면 ‘오늘의 중요 뉴스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미래형 뉴스를 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기획된 것이 ‘오늘의 이슈’. 이 코너는 기획단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지만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다. 대표기자가 출연하면 ‘딱’이라는 생각이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첫술에 배부르겠는가?

아쉬움과 과제

앞서 언급한 새로움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①돈 ②사람 ③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아쉽지만 ‘뉴스7-9’는 이 세가지 모두 넉넉하지 않은(솔직하게 말하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전에 이런 요지의 글을 읽은 기억난다. ‘몇 사람의 의욕만으로 방송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은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방송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란 얘기다. 요즘 주어진 여건 만큼만 하면 되지 그렇게 무릎을 일이 뭐 있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엔 별 관심이 없다. 돈과 사람과 시간이 없어도 당분간 ‘뉴스7-9’는 굴러갈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뉴스7-9는 성공한 프로그램인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다. 그러면 성공할 것인가?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다. 방송 첫날 시청률을 제외하면 담당 PD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말 그대로 ‘애만 썼다’는 얘기인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뉴스7-9’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실험은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방병 삼 차장대우 (편집2팀)

